

교회 목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음 주일 교회설립 기념주일(2·3부 가족연합예배) 및 제6차 성찬식

이제 무더운 여름이 가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깨워 다시 일어나십시오(살전 5:6). 특별히 다음 주일은 교회설립 5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세워진 충현교회가 복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는 신앙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설립 기념주일을 맞아 2·3부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연합예배로 드리며, 1~5부예배 시에는 2011년 제6차 성찬식이 진행될 예정이니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시에는 교회설립을 기념하는 특별찬양이 준비되었으니 모든 성도의 참석을 바랍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엡 1:22~23).

*오늘 찬양예배 시, 제4차 학습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길리리(월)

9월
교회
일정

4 일(주) 교회설립 기념주일(2·3부 가족연합예배) 및 특별찬양(찬양예배)
7 일(수) 장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24 일(토) 파택가교로 중강예배(오후 3시)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

사랑을 받은
우리들

회개가 있기 전에는 참다운 신앙이 아니다(마 4:17).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였는가? 예수님은 우리 죄악의 집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겨 죽으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까지 열어주셨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의 자손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을 모든 인생들에게 아주 가깝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사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마침내 온 세상 사람이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음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천국 문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오직 의인만이,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요 10:9, 28).

야곱은 자기 혼자 벨엘로 가지 않았다.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바꾸고 함께 가자고 하였다(창 16:31). 요셉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세밀하게 미리 미리 알려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라 형제들에게 고하게 하셨다. 이 꿈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으나 막상 요셉을 잃게 된 순간에 그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인생이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의 아들인 에사와 야곱의 복잡한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각각의 상황에서 그들은 순종하였다(창 15:12~13, 28:13~16).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또 묻으며 전통의 길 걷기를 고집하고 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충현교회에 부어주셨다.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지만 분명히 원했던 것,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 내가 원하면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오라기 같은 교단은 나로 하여금 감사보다는 두려움을 더 많이 보게 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를 보지 않으시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을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송할 뿐 두려운 것은 없다(요일 4:14~16). 아직도 '내가' 살아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았으나 그 사랑과 보호를 늘 몸으로 체험하면서도 감사하며 살지는 못하였다. 일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한다(창 35:1).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아는 것보다는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순종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야담의 죄로 물들어 버린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다. 야곱은 이 일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슬픔 속에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셨다(창 46:2~4).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다. 보통 죄인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사 19:9; 요일 4:18; 계 1:17). 죄인들을 향한 신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아멘.

THE IMPORTANCE OF REMEMBERING

*⁽¹⁷⁾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alls,
⁽¹⁸⁾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¹⁹⁾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r,
he enables me to go on the heights. For the director of music. On my stringed instruments.
(Habakkuk 3:17~19)*

There's no doubt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s! Our world's economic, political, and religious fabrics are filthy. Natural and unnatural disasters are tearing our world apart. The level of human sinfulness is increasing; violence, inequity, and wickedness are rampant. Evil situations surround God's people, very much like what Habakkuk experienced before Nebuchadnezzar first invaded Judah. Habakkuk was not a famous prophet, but God commissioned him to announce His intention to punish Judah by their coming deportation into Babylon. Habakkuk didn't understand why God was allowing wicked practices to continue in Judah, "How long, O Lord, must I call for help, but you do not listen? Or cry out to you, 'Violence!' but you do not save? Why do you make me look at injustice? Why do you tolerate wrong? Destruction and violence are before me; there is strife, and conflict abounds. Therefore the law is paralyzed, and justice never prevails. The wicked hem in the righteous, so that justice is perverted" (Hab. 1:2~4). Besides not understanding why God was permitting the increase of evil in Judah to go unpunished, Habakkuk also didn't understand how God could justify using Babylonians, a people more wicked than the Jews, to punish the Jews, "Why are You silent while the wicked swallow up those more righteous than themselves?" (Hab. 1:13). Habakkuk trusted God, yet was perplexed. Many of today's Christians are feeling exactly the same way because they see the world intent only upon dishonest gain, and on shedding innocent blood and on practicing oppression and extortion. They see Churches distorting God's Word; emphasizing physical improvements like happiness and success. They see misguided believer's not practicing true faith; striving for worldly riches. Our God is the author of spiritual transformation!

Right now, we're living in a world where the majority of Christians don't practice their faith. There is no righteousness in our governments. Humanity is falling deeper into sin. The earth is filled with disasters. Church leaders are forgetting to look at the Bible, but instead focusing on the dire situations in front of them. Things don't look good now, and the future outlook is even worse. However, if you turn to the Bible and read the first and last few verses of Habakkuk, you can hardly believe it is the same author. What changed? When Habakkuk remembered the person, power, and purpose of God, his faith enabled him to proclaim,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alls,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r, he enables me to go on the heights. For the director of music. On my stringed instruments" (Hab. 3:17~19).

Habakkuk begins in a frantic state of doubt because of the horrendous circumstances in which he lived, but by the time he concludes he is filled with such peace and trust because he honestly knows that no matter what happens we can rejoice in the Lord. My heart and your heart can experience this peace, even through today's difficult times. This is a real security I feel Christians of our day want to experience. Aren't you tired of witnessing receding faith, flabby commitments, and our dull spiritual routines?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Habakkuk's breakthrough involved the power of remembering. He lived in dry times when God's grace and comfort were difficult to see, exactly like our situation right now. Haven't you been through a season like that? God knows life in this world can be a series of spiritual mountain tops and deep valleys. Our spiritual highs make it easier for us to find contentment, but when we go for long stretches with very little sense of God's closeness, God has taught us to rely on our memory. We need to remember God's person, power, and purpose in order to invigorate our faith.

Today's Lord's Supper stands as a memory aid beyond compare! It is the regular opportunity God provides for us to remember. God's love has not changed since His Son died on the cross. In fact, the Lord's Supper is so packed with the meaning of His love that it provides the very real possibility of creating a life changing 'before and after' experience each time we eat and drink it. Only you know the 'before' condition of your heart, but as you reflect and remember Jesus Christ, God's hope is that the Spirit will steer something within you that you will not go home unchanged. Jesus commands us to partake in Communion,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Lk. 22:19). Remember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results of Jesus Christ's death gives us hope. We have the same hope as He has. The Lord's Supper strengthens our faith. Please my dear friend, don't ever give up. Whatever your situation, come now and join the Lord's Table and receive the strength, hope, and peace of eternal life. Amen. 🙏

기억하라

⁽¹⁷⁾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¹⁸⁾나는 여호와와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¹⁹⁾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17~19)



김성완 목사

하박국이 처한 상황

우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간극은 부패했습니다. 자연재해와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우리 세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죄의 수위는 높아져서 폭력, 불평등,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느 부가대사의 첫 유다 침공 이전 하박국이 경험 했듯이 열악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당신의 계획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 악한 일이 계속되도록 허용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길과 강과 내 앞에 있어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까 이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함 1:2~4). 하박국은 어쩌서 하나님이 유다 땅에 날로 늘어만 가는 죄를 벌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보다 더 사악한 바벨론인들을 사용해 유대인들을 벌하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기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함 1:13).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부정직한 이윤 추적, 무죄한 피 흘림, 압제와 토색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들도 말씀을 왜곡해 행복이나 성공과 같은 물질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가 현혹되어 참 믿음을 실천하지 않고 세상적인 부에 목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적 변화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지금,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에는 정의가 없고, 인류는 더욱 죄에 빠져 들고 있으며, 지구는 재난으로 가득합니다. 교회지도자들은 성경을 외면한 채 자신들 앞에 놓인 비참한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 보이며 앞으로는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이켜 하박국서의 처음과 끝의 몇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동일인이 썼다는 것을 믿기 힘들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인정, 능력 그리고 목적을 기억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함 3:17~19).

주님 안에서

하박국서 시작 부분에서 그는 당시의 참혹한 상황으로 인해 극도로 흥분하며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서가 끝날 무렵에는 평화와 신뢰가 가득한데 이는 상황에 관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그가 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도 모두가 마음으로 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된 안전함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날로 줄어드는 믿음, 축 늘어진 듯한 헌신과 우리의 지루하고 틀에 박힌 영적 일상을 보면서 진절머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기억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찾기 힘든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었고, 이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산꼭대기와 깊은 계곡을 번갈아 오가듯 영적으로 들쭉날쭉 할 수 있음을 아십니다. 영적인 산꼭대기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억에 의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 능력 그리고 목적을 기억하여 믿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주의 만찬을 기억하라

오늘날 주의 만찬은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는 최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정기적인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도 불변했습니다. 사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최상의 시간으로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삶이 바뀌는 ‘전후’ 체험의 실질적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은 단지 자기 마음의 ‘전’ 상태 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여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끄시고 여러분이 꼭 변화되어 집에 돌아가길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식 참여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결과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소망을 갖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주님의 식탁으로 와서 함께 영생의 능력, 소망, 그리고 평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M**

메시아의 죽음 88

종의 귀를 자르다

예수님을 잡으려 온 무리 중 한 사람의 귀가 잘리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막 14:46~47)고 기술하였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마가는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세관원이었던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도 이와 비슷하다. 마태도 마가복음과 거의 똑같이 기술하였다(마 26:50~51).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마태와 마가와는 약간 다르게 기술하였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야고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눅 22:49~50). 누가도 마가와 마태처럼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려 온 무리를 먼저 공격한 쪽은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가장 구체적으로 종의 귀를 자른 사건을 기술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없지 아니 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요 18:8~11).

종의 귀를 자른 제자는 베드로였다. 그는 자신의 기질대로 조금하게 나서서 무리를 대적하였고, 한 사람을 공격하여 피를 흘리게 했다. 피 흘리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창 9:6). 그런데 제자들이 피 흘리는 데 앞장 선 것이다. 소위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표면적인 이유라고 주장하겠지만 실재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갓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음에도 잠에 빠졌던 제자들이 아니었는가? 종의 귀를 자른 행동은 예수님의 길을 막는 불필요한 행동이었다. 당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는 행위가 아니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계 13:10).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말하는 우리의 내면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하지 않은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대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했다(마 20:22). 또한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요 13:37)라고 베드로는 큰 소리쳤다. 대단한 충성심을 가진 제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며, 모른다 부인하기까지 했다. 내가 하려고 나서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인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정도로 우리는 진실로 악하고 교만하다. 주님께 항복하자. “내 실력이 주님의 길을 막지 않게 하소서, 가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 마태, 누가, 요한, 마가, 사복음서 440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초두에는 당시(A.D. 90년경) 소아시아에 개척된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소개되어 있다. 이 메시지들은 단지 이들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곱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 생겨날 모든 교회의 대표로서 이 말씀들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 일곱 교회의 상황과 각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메시지를 새겨,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

	특징	칭찬	책망	당부	약속	상징
에베소 교회	정통적인 교회 (계 2:1-7)	선행, 인내, 악에 대한 배격, 교회 질서 확립, 주를 위해 성실함	처음 사랑을 버리고 회복하라	회개하여 구원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누리라	정통을 지키는 데는 열심이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등한히 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	가난하나 부요한 교회 (계 2:8-11)	영적인 부를 누림	10일 동안의 환란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10일 동안의 환란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라, 들며 사랑을 피하라	궁핍에 초연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교회
버가모 교회	우상 숭배한 교회 (계 2:12-17)	고난과 순교의 위기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좇아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있음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누리라	혼탁한 세태와 결탁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	악한 여 선지자의 교회 (계 2:18-29)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가짓 선지자 이세벨을 좇음, 우상 숭배, 행음	처참한 결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별 별을 누리라	많은 이단에 침투되어 진리를 떠난 교회
사데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계 3:1-6)	몇 사람이 영적 순결을 지킴	극도의 형식주의, 영적 무기력, 행함이 없는 믿음	신앙을 점검 회개하라	흰 옷을 입고 주와 동행 하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라	그릇된 교리,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계 3:7-13)	작은 능력으로도 철저히 순종함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말씀을 지키며 바른 신앙을 견지하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부요하나 가난한 교회 (계 3:14-22)		미지근함, 교만함, 영적 가난, 영적 수치, 영적 소경	자신을 돌아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주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의 보좌에 앉으리라	세대를 좇아 인기를 누리며 물질적 부를 누리는 세속화된 교회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저는 원래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복음 전파하는 데에 좀처럼 열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했던 팀원들이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자극도 받고, 도전도 받아 미안하지만 조금씩 변화하여 열정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언어가 어려운데, 저희의 준비가 부족해서 전담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끝까지 들어주고 기도까지 함께 해 준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신기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진원(대학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주님 말씀 순종'이 먼저인 생각만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무슬림을 만나면 반가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저들이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재밌하실 것이라기에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예수님, 내년에도 주님 명령 순종하게 저의 모든 일을 조정해 주시옵소서. 갈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시 가고 싶습니다. 목이 쉬게 찬양 부르며 주님 전하고 싶습니다.

이희영(집사, 11교구)

성령충만

저녁 평가회 때 현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이유를 알았다. 다양한 신들을 믿기 때문에 모든 신들을 다 좋다고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침 경건회 때 성령충만한 바기를 기도하고 전도의 길을 나아갈 때 여인들과 아이들이 많이 물려왔다. 여인들의 이마에는 붉은 점이 있었다. 붉은 점은 죄라고 말해 주자 그들은 점을 지우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아이들은 찬양도 잘 따라 했다. 어린 생명들과 커 가는 젊은이들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소망이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다. 전도할 때 방해하는 부모들이 있어 안타까웠다. 교회에 나가면 동네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고 했다. 이들이 혼합 종교가 아닌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다.

표복심(권사, 19교구)

평안한 마음

밤 10시 쯤에 현지 공원에 도착하였으나 약속된 기사는 나오지 않았고, 호텔은 이미 만원이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 열려도 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지! 우리는 믿고 맡기며 감사히 따르면 되니까.' 친절한 택시기사를 보내 주시고, 목을 곳을 찾아 주셨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와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역할 것을 결심하였다. 무슬림, 천주교도, 토속 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찬양과 전도지를 통해 심어 주면서 '이곳이 정말 땅 끝이구나' 생각하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인 학생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느라 처음엔 거절했지만 전도지를 선물이라고 건네주면 몰래 숨어서 읽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다.

이원진(권사, 11교구)

은혜로운 시간

원자가 있는 관계로 선교는 입두조각 내지 못하던 내게 선교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기회를 주셨다. 출발을 앞두고 가슴이 떨리고 '잘할 수 있을까?' 열려가 되었다. 게르에서 복음 전하고 찬양과 율동을 하니 현지인들이 우리를 따라하면서 매우 호호했 하였다. 그들은 집을 나서서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주었다. 다섯 째날 남은 전도지를 모두 모아 골목 골목 다니며 복음 전하고 주님께 영접기도 올리고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사역을 하면서 우리 팀원들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었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 너무 기뻐했다.

박금련(집사, 24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22일(월) ~ 8월 29일(월)	18교구 1팀	이석재
8월 22일(월) ~ 8월 29일(월)	18교구 3팀	안연식
8월 22일(월) ~ 8월 30일(화)	9교구 1팀	전성욱
8월 25일(목) ~ 8월 1일(목)	2교구 3팀	박종철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5일(월) ~ 8월 23일(화)	12교구 2팀	정육권





2011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구약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

설렘과 기대감을 갖고 수련회를 향해 출발했다. 나는 학생회 임원으로 이번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고민들과 미흡하게 준비한 수련회 프로그램들로 인해 걱정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수련회 준비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친구들과의 친교이다. 게임과 물놀이를 통해 평소 말할 기회가 없었던 선배들이나 후배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다. 또한 평소에서 시작했던 친구나 인사했던 친구들 산생님들과도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로는 부흥회 시간이다. 피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 가는 시간이었고, 부족한 나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부흥회 후 기도 시간에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초점이 아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감사사이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특별히 나에게 생길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사이다. 그동안 생활하면서 감사함이 아닌, 불평과 불만으로 생활했던 날들이 더 많았다. 또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타협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 항상 감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언제나 예배 후 사색에 들어가 생활할 때에는 불평이 가득 했고, 힘들다고 투덜댔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다. 주님은 항상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이다. 어찌 보면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당시에는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일이었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나에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낫출 수 있게 하셨다. 또한 더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 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일에 나만을 위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다. 부흥회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언니, 오빠, 찬두 그리고 선생님을 보며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하루하루 주신 것 또한 감사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다. 편혜림(학생, 고등부)

기도의 힘

2월 3일간의 고등부 수련회가 끝이 났다. 처음으로 가보는 선배대의 일정을 포함하면 3박 4일 동안의 수련회였다. 학생회로 고등부에서 봉사하면서 수련회 대임을 짜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막상 수련회가 다지고도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대하면서 임원들과 선생님들은 많은 걱정을 했다. 가도날에 하루 일찍 도착한 선배 대원들은 자재에 모여 기도를 했다. 건강과 프로그램 진행과 가장 중요한 날씨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물놀이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비를 가두셨다가 물놀이가 끝나자마자 비를 내리셨다.

나는 그때 기도의 힘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의 성공과 함께 기도의 실패를 통해서도 기도의 힘을 깨닫게 하셨다. 물놀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지만 나머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비가 줄게 나머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었다. 솔직히 날씨 문제로 인해 물놀이를 못한다는 것만을 걱정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는 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거야라는 자신감이 가득하여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일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수련회에 오면 가장 좋은 것이 역시 부흥회이다.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할 때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은 내가 남을 위해 기도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는 부흥회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지만, 저녁 부흥회 때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고 난 후 세상 속에 바깥에 살던 믿을 없던 나에게 한층 성숙해진 마음이 다기겠다. 그래서 부흥회가 끝난 후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믿음도 더욱 성숙해지는 것 같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구약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의 참 사랑을 느끼고 발견하게 되어 참 감사했고, 그 못지 않게 나에게 있어 이번 수련회는 '기도' 이 두 글자만 충분히 것 같 다. 박종현(학생, 고등부)

내 안의 우상을 깨뜨리며

구약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출애굽기를 경험해 보는 것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우리 교에서 준비한 금슬이치 사자를 출애굽기 32장에 대해서 준비한 금슬이치 사자를 출애굽기 32장에 근거하여 우상을 켜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 아이들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준비도 서둘렀지만 연극 내내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자신부터 얼마나 많은 우상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지, 아이들에게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정말 버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내내 배웠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저는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게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감사사입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게 해 주세요." 이정희(교사, 초등1부)

믿음의 원동력

빈 들에 마른 풀 같은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며 청소년기를 맞이 이 땅의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입신과 공부로 하루하루가 바거운 우리의 고등부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나만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에 고등부가 하나 되어 몸과 맘이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들이길 간절히 소망하며 수련회로 발돋움을 올렸다. 정말 잘이다. 수련회에 아이들이 참석하도록 하는 첫걸음부터 한가로운 영적 싸움의 시작이다.

방학은 특강과 학원 스케줄로 빽빽한 시기이어서 수련회 참석 자체가 학생들에게 너무 큰 십자가인 듯하다. 특히 초중고 말고 있는 교사로서 당장 수능 100여 일을 앞두고 있는 반 아이들을 설득하여 참석시키는 것이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를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부터 주님은 비쁘게 일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나들과 세 친구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배자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자만이 맛보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알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고등부 기도한다.

고등부 수련회 마지막 날 부흥회에는 항상 33들의 특별 찬양 송사가 있다. 수련회 기간 전부터 틈틈이 준비된 찬양을 위해 연습하여 다른 날에는 참석 못하는 친구들도 그 날 그 시간만큼은 꼭 참여하여 찬양을 드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30여 명의 학생들이 맘을 다하고 뜻을 내세워 찬양으로 절로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까지 나온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그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의 눈을 바라보며 찬양이 끝날 때까지 함께 눈물을 흘린다. 학생들이 아니라나에게도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날 프로그램 중에서도 부흥회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는 설문 결과를 보면서 예배의 힘이, 기도의 힘이 우리 아이들이 입신의 압박감을 이겨내는 믿음의 원동력으로 삼아하게 된다.

이번 부흥회 때도 선배들을 위해서 서로 부둥켜안고 기도해 주며 그동안 공부로 핏겨로 예수님을 잊었던 물려나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그 안에서 가장 부여주는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주의 자라는 주의 품에 안길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함을 또 한 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 안정희(교사, 고등부)



충현음악아카데미 음악캠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 재미있었다. 일주일 동안 하던 좋았다. (최준혁 학생)

♪ 음악캠프에 가서 바이올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마스터클래스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실력을 알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와 함께 하는 것은 낯설고도 귀엽기도 들어 보았고, 듀엣도 듣고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음악캠프에 가면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영 학생)

♪ 교회 사람들이 같이 기도원에서 지내면 적은 것 같은 시간이 모여서 연주를 한 적은 처음이라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서로 찬송을 준비하며 찬송 드리고, 지휘자 선생님의 재미있는 강의도 듣고,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나의 자리에서의 책임감도 배울 수 있었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 (이재현 학생)

♪ 찬양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찬양하라고 하신 것을 깨달았다. (김영주 학생)

♪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고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악기를 연주할 때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연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에서 다른 파트의 연주가 나올 때, 소리를 들어와 작게 연주해야 힘을 깨달았습니다. 몸 된 교회의 귀한 연주 선생님들이 우리를 지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김영준 학생)

참 닦았했습니다

아무 자력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선택 받은 자 되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충현음악아카데미를 통해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음악캠프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악기로 나누게 해 주시고, 마스터클래스 시간도 가지며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칭찬하며 부러워하며 악인의 자각도 되었습니다.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연주하는 동안은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 아름다운 저녁 아외음악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벅찬 시간이고, 가슴이 만져 반응하듯 눈물이 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더욱더 큰 감동이며, 주 안에서 만난 형제자매의 모습이 참 닦았했습니다. 지휘자 집사님의 강연 '영적인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말씀은 달콤하고 흥미로운 강연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자기 파트가 실 때에도, 다른 악기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며, 지루하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며 같은 호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파트가 연주를 할 때도 한 호흡을 하며 기다려 주는 것도 하나의 소리 없는 연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목소리로 악기 소리를 내며 손으로 악기 켜는 동작까지도 보여주셨고, 지휘하는 손동작을 보며 박자 맞추는 법을 알려 주시는 등 무엇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강연이었습니다. 벌써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충현음악아카데미 음악캠프를 통해 많이 느끼고 체험하는 좋은 기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말로 설명해서 이해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김영준 학생)



사진으로 보는 충현 58년史 (1)

초기 성가대 사진



신령한 예배를 위한 성가대는 교회 설립 초기부터 결성되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된 성가대가 지금은 9개의 찬양대·오케스트라 및 핸드벨 연주대가 조직되어, 구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교회학교에도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조직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다

김성관 목사

십자가는 부끄러운 울과 자주의 상징이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고문수감

게 죽이는 죄악의 형벌이었다. 이처럼 예전에는 십자가를 기적조차 하기 싫었지만 오늘날에는 하나의 장신구나 무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식이 되어 버렸다. 바울에게는 십자가뿐이었다(갈 6:14). 우리도 십자가뿐이어야 한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담겨 있다(히 9:22).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십자가의 목적은 죄인들의 구원이다(행 4:12). 십자가만이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요 1:7).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골 1:20).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쏟아낸 피를 통해서만 죄인들은 구원을 받는다(롬 5:10). 이와 같은 십자가의 목적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전한다.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를 사람으로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헛된 영광과 오만한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가지 말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자. 아멘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새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과과정	교구 인도자
2735	안예인	영아부	16 출생
2736	양서정	영아부	18 출생
2737	소성우	영아부	14 출생
2738	김효은	양육부	19 김희숙
2739	이유정	양육부	7 안세현
2740	백진희	양육부	22 한금예
2741	김재경	양육부	14 민병만
2742	김유람	양육부	20 조희준
2743	박보배	청년1부	14
2744	심재윤	양육부	9 김현철
2745	안정하	양육부	9 김현철
2746	심형보	영아부	9 김현철
2747	염지선	양육부	15 유새롬
2748	김진호	양육부	9 이연옥
2749	김진선	중등부	17 양해수
2750	염영자	양육부	1 김미애
2751	최동환	양육부	22 박현숙
2752	박진혜		19 유정옥
2753	이영아		22 이연선

